

# 학생경험(Student Experience) 중심 대학

최영우 | (주)도움과나눔 대표

나는 교육학자도 전문가도 아니다. 다만 2001년부터 비영리모금컨설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며 많은 교육 기관과 일하는 행운을 누렸다. 참 많은 총장, 교수, 선생님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세월 때문에 대학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생겼다. 커피나 한 잔 하면서 나누고 싶은 소박한 이야기이다.

국내 대학 몇 곳을 함께 컨설팅 한 적이 있는 영국인 친구가 7년 전에 갑자기 나에게 말했다.

“선진국들 중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만 학교에 의해서 방치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미국, 유럽, 아시아의 선도대학들의 상황을 속속들이 아는 이의 말이라 자존심이 상했지만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 내 머리를 떠난 적이 없었다. 그 이후 ‘우리는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는가?’라는 단순한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는 이를 만나지 못했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열정’을 되살려야 할 시기가 되었다.



기업들도 마케팅 3.0을 말하고 영혼에 호소하는 서비스와 기업운동을 논하는 시대이다. 아이폰의 TV 광고는 온통 '경험'과 '어떤 감동적 순간'에 집중되어 있다. 병원들도 환자경험(patient experience)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메이요클리닉(Mayo Clinic)에 관한 책은 국내에서도 번역되었다. 환자가 병원에서 겪는 모든 경험을 분석하는 우리나라 병원을 보았다. 의사가 환자를 상담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더 깊이 교감하는 상담을 위해서 눈을 맞추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었다.

대학들은 지표의 관리에 많은 관심이 있다. 그러나 총체적인 학생들의 '행복한' 경험이라는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없다. 대학이 학생들의 모든 경험을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생들이 최고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힘쓰기 방향을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경험은 귀중한 사회적 자본이 될 터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것이 많은 스트레스 아래 있는 한국대학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

나는 교육이 '드러냄'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쪽빛이 제 색을 내듯이, 열로 고통을 당한 커피가 향을 내듯이 모든 사물은 저마다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는 과정이 있다. 한국의 수많은 대학생들이 삶에서 만년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의 뒷에 걸려 있는 듯하다. 심각한 대졸 실업

문제는 많은 학생들에게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듯하다. 자기 삶에 대한 단단한 확신이 없는 '잠정적' 인물로 멈추어 버린 이들을 많이 본다. 이들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식을 더 이상 탐하지 않는다. 세상을 구원할 사회성을 기르려고 감히 힘을 내지 않는다. 스펙을 쌓아가지만 그것은 자기확신의 결핍에서 오는 두려움일 가능성이 많다.

자연에 있는 풀꽃 하나도 제자리가 있다. 태양 빛을 바로 받고, 온 대지를 불어온 바람을 호흡한다. 대학이 학생들에게 자기의 빛이 드러나게 도와 줄 헌신이 없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본질가치가 나타나도록 하는 데 대학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불행하다.

지극히 단순한 물음을 하고 싶다. 우리는 학생들을 사랑하는가? 내 연구와 교육에 사회와 학생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존재하는가? 나는 정말 학생들에게 지식의 본질을 전달하려고 하는 애정이 있고 전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우리는 학생을 모집할 때, 그들의 삶의 숨겨진 가치를 드러내어 주겠다는 결심과 믿음이 있는가? 컨설팅 과정에서 만난 한 교수님의 시가 몇 개월 내내 내 가슴에 울리고 있다.

사랑이란 사람 하나 가슴에 품고 힘을 내는 것이다.

(구이람 시인)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고려대학교원 국제경영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하였다. 산업연구원(KIET)에서 한국경제 및 무역에 관한 조사 및 예측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이후 한국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Korea)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현재 비영리섹터를 위한 모금컨설팅 회사인 ㈜도움과 나눔의 CEO이며(주) 도움과 나눔은 2005년부터 Brakeley의 한국파트너이며, 2013년부터 Brakeley Asia의 소유기업이다.